

전자랜드 정영삼 “농구 잘하는 아빠 될래”

V리그 전초전, 용병도 함께 뛰다

전랜 주장이자 아빠의 이름으로

아들 “아빠는 왜 만날 다쳐?” 돌직구 몸 관리 집중…플레이 스타일도 변화

전자랜드는 남자프로농구 2015~2016시즌에 최하위의 아픔을 맛봤다. 팀의 간판선수이자 주장인 정영삼(32)도 적잖게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다. 자신의 경기력도 실망스러웠다. 그는 지난 시즌 잦은 부상에 시달리며 40경기 출장(14경기 결장)에 그쳤다. 2012~2013시즌부터 3시즌 연속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했지만, 2015~2016시즌에는 평균 9.55점에 그치고 말았다.

팀의 중국전지훈련에 참가한 정영삼은 21일 “데뷔 후 지난 시즌이 결장이 가장 많은 때였다. 때 시즌 48경기 이상을 뛰어왔는데, 지난 시즌에는 유독 부상이 많았다. 어느덧 내게 ‘아픈 선수’의 이미지가 붙어있더라. 그래서 이번 오 시즌 동안에는 몸 관리에 신경을 많이 썼다. 몇 주 전 연습경기를 뛰다 발목을 약간 다쳐 일주일 쯤 것을 제외하고는 꾸준히 운동을 해왔다”고 밝혔다.

정영삼을 일깨우는 자극제는 두 자녀다. 그는 또래보다 빨리 결혼(2008년)해 여덟 살 난 딸과 여섯 살이 된 아들을 두고 있다. 정영삼은 “첫째는 그래도 딸이어서 그런지 막말을 하지는 않는다. 이 기지 못한 날에는 ‘다음에 이기면 되지’라고 말한다. 아들은 아니다. ‘아빠, 오

늘 하나도 못 넣었어. 아빠는 왜 만날 다쳐?’하면서 직설적으로 말한다”며 아이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딸은 초등학교 2학년이다. 농구 코트 위에선 전자랜드의 주축선수지만, 코트 밖에선 학부 모다. 정영삼은 “첫째는 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많은 친구들과 어울린다. 컴퓨터나 스마트폰도 할 줄 아는 나이이다. 그러다보니 아무래도 신경이 쓰인다. 아이들에게 더 자랑스러운 아빠가 되기 위해 농구를 더 잘하는 선수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하게 된다”며 웃었다.

어느덧 30대에 접어든 정영삼은 플레이 스타일에도 변화를 주고 있다. 과거에는 스피드와 운동능력에 의존하는 스타일이었지만, 좀더 영리하고 노련한 플레이를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운동능력에 자신이 있다보니 ‘생각하는 농구’와는 거리가 있었다. 그냥 마음먹은대로 돌파를 하면 됐으니까. 30대가 되면서 스피드가 예전만 못하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 흐름을 읽고 상대 수비에 노련하게 대처하면서 생각하는 농구를 하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익숙하지 않다. 하지만 플레이 스타일에 변화를 주는 것이 내 경쟁력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야지 아이들에게도 좀더 오랫동안 ‘농구 잘하는 아빠’의 모습을 보여줄 것 아닌가”라며 너털웃음을 지었다.

다렌(중국 라오닝성) | 정지욱 기자 stop@donga.com



전자랜드 정영삼(가운데)이 중국전지훈련 도중 새 외국인선수 제인스 켈리(왼쪽)와 대화를 나누며 웃고 있다. 정영삼은 코트 안에서 팀의 주장으로, 코트 밖에선 두 아이의 아빠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 다렌(중국 라오닝성) | 정지욱 기자

장호성 단국대 총장, 대한체육회장 선거 출마 선언

이기홍 전 수영연맹 회장도 출사표

장호성(61·사진) 단국대 총장이 제40대 대한체육회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장 총장은 2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체육인들의 기대와 소망을 실현하기 위해 대한체육회장 선거 출마를 결심했다”며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 회장으로 재직하며 스포츠 분야 발전을 위해 고민하고 노력했던 경험을 살려 대한체육

회를 국민들에게 사랑받고 체육인들의 자부심이 되는 기관으로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3월 통합 대한체육회 출범 이후 혼란을 겪고 있는 체육인들의 위상을 제고하고, 화합과 안정을 이뤄 한국체육 발전에 이바지하고 싶다는 희망을 피력했다.

“함께 가자! 대한체육 100년”을 모토로 내건 장 총장은 ▲전문체육·생활체육·학교체육이 하나 되는 통합 대한체육회 ▲선수와 지도자에게 자랑스러운 대한체육회 ▲국민 모두에게 행복을 드리는



대한체육회 ▲청소년의 활기찬 삶에 이바지하는 대한체육회 ▲평창동계올림픽 성공을 주도하는 대한체육회 ▲대한체육회관 신축 ▲대한체육회의 주말 등 6가지의 공약을 제시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투명하고 민주적인 의사결정 체제 및 부패방지 시스템 확립 ▲경기단체 및 시도체육회의 재정 건전성 강화 ▲전문체육인의 일자리 창출 ▲스포츠 클럽 및 리그제 확산 ▲전문체육의 주말 리그 전환 및 학교 스포츠클럽의 리그제 도입 등의 실행 계획을 발표했다.

한편 이기홍(61) 전 대한수영연맹 회

장도 이날 보도자료로 통해 대한체육회장 선거 출마 의사를 전했다.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신도회장을 맡고 있는 이전 회장은 2000년 대한근대5종연맹 부회장, 2004년 대한가수연맹 회장을 맡은 뒤 2005년부터 올해 초까지 대한체육회 부회장을 지냈다.

이미 장정수(64)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운영위원과 전병관(61) 전 한국체육회회장이 출사표를 던진 가운데 장 총장과 이 전 회장까지 가세함에 따라 다음달 5일 치러질 대한체육회장 선거는 4파전 양상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후보등록기간은 22~23일이다.

김도현 기자 dohoney@donga.com

육상 스타 타이슨 게이, 봅슬레이 도전

AP통신은 미국 육상 스타 타이슨 게이(34)가 22일(한국시간) 캐나다 켈거리에서 개막하는 미국 봅슬레이 푸시맨 선수권대회에 출전한다고 21일 보도했다. 이 대회에는 2016~2017시즌 봅슬레이국가대표를 희망하는 선수들이 참여한다. 파일럿 역할을 하는 선수들이 이번 대회 결과를 분석해 팀을 꾸린 뒤 다음달 미국레이크플래시드에서 열리는 국가대표 선발전에 나선다. 하계올림픽에 3회 연속(2008년 베이징·

2012년 런던·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출전한 게이는 지난날 리우올림픽 이후 본격적으로 봅슬레이 훈련을 시작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 메달을 목표한 것으로 보이는 게이는 4인승 팀에 합류할 가능성이 높다. 게이는 우사인 볼트(30·자메이카)가 ‘단거리 황제’로 올라서기 전까지 세계를 호령했던 스타다. 그러나 올림픽 메달과는 연을 맺지 못했다.

김영준 기자 gatzby@donga.com

편진 | 고정일 기자 ico@donga.com

격투기



1 ROAD FC 정문홍 대표(왼쪽에서 3번째)가 7성연주 기업재휴행사에 참석했다. 2 베이징 ROAD FC 체육관 인테리어 현장에서 기념촬영. 3 정문홍 대표가 중국의 경제채널 CCTV2와 인터뷰 하는 영상. 4 ROAD FC 중국법인인 투자가지 상을 받고 있다.



중국 격투기 한류 이끄는 로드FC

3차례 대회, 스포츠 시청률 1위 “中 CCTV, 경기 늘려달라 요청” 게임·현지 체육관 등 영역 확대 “1년 내 20억달러 가치 브랜드로”



종합 격투기 ROAD FC가 중국에서 갈수록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최근 사드(THAD) 여파로 한류에 대한 중국인들의 시선이 차가워지고 다양한 분야에서 피해가 나타나지만 ROAD FC는 예외다. 24일 장충체육관에서 개

최되는 XIAOMI ROAD FC 033을 앞두고 벌어진 공식기자회견에 참석했던 정문홍 ROAD FC 대표는 “최후반의 경기가 예정을 앞당겨 중국이 아닌 한국에서 열린 것은 한국측 스폰서의 요청과 마이티 모가 손가락 부상으로 경기일정을 앞당겨 달라고 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해 ROAD FC는 사드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고 있다”고 했다.

정 대표는 이에 대한 근거로 많은 수치를 제시했다. “현재 ROAD FC를 중계하는 중국 CCTV에서 경기개최를 더 늘려달라고 요청했다. 매우 한 경기 꼴로 해달라고 한다. 이는 현실적으로 힘들지만

내년에는 대회가 20~30회 정도 더 늘어날 것이다”고 했다.

CCTV가 ROAD FC의 경기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높은 시청률과 시청인구에서 증명된다. 3차례 중국에서 치른 대회의 시청률은 매년 CCTV 스포츠 시청률 1위를 기록했다. 대회 평균시청자가 3500만 명이라는 수치가 있기에 CCTV로서는 황금알을 낳는 아이템으로 여기는 눈치다. 다른 방송사도 달려들었다. 후난망귀TV(후난위성TV 방송콘텐츠 제작 자회사)가 ROAD FC와 격투관련 TV프로그램 제작협상을 벌였고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이런 자신감을 바탕으로 ROAD FC는 다양한 변신을 하고 있다. 단순히 종합격투기 경기를 보여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게임과 문화 예술로 활동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11월에는 메인스폰서 샤오미와 합작해 ROAD FC 게임을 출시할 예정이다. 중국 소비자와의 접점을 다양화 해 소비자 연령대를 낮추고 이들을 충성스런 고객으로 만드는 작업이다. 중국의 수도 베이징에는 1800평 규모의 ROAD 파크도 오픈 할 예정이다. 20일 공식기자회견이 벌어졌던 압구정 ROAD FC점처럼 중국에서 ROAD FC를 대표하는 공식체육관을 만들어 스포츠 문화 예술을 아우르는 시설로 사용할 계획이다. 문화 금융 스포츠의 융합인들이 이 자리를 통해 교류하며 소통하는 장소가 되기를 원한다. 중국을 포함해 세계시장으로 확대를

위한 노력은 새로 뽑은 ROAD결에서도 드러난다. 지난해 처음 선발했던 임지우에 이어 2대 ROAD결 왕지윤이 20일 공식기자회견에서 등장해 인사를 했다. 2008년 미스코리아 서울 선 출신의 왕지윤은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출신으로 중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해 눈길을 끌었다. 정문홍 대표는 “현재 중국에서 7000만 명이 우리의 경기를 보고 있다. 한국을 중국에 알려야 하는데 그런 면에서 미스코리아 출신으로서 지성을 겸비한 사람을 영입했다. 글로벌화를 추구하는 ROAD FC의 이미지에 맞는 인재는 앞으로 계속 영입할 생각”이라고 했다.

ROAD FC는 2015년 7월 대한민국의 프로스포츠 단체로는 처음으로 해외에 진출한 이후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서 다양한 변신을 통해 점차 글로벌 엔터

테인먼트 기업으로 변신해가고 있다. 이런 노력이 있었기에 제1회 베이징 문화창의 창신 창업대회에서 올해의 투자가치 상을 받았다. 500개의 경쟁 프로젝트 가운데 유일하게 2억 달러의 가치를 지닌 문화산업으로 평가받았고 중국의 많은 기업으로부터 러브콜을 받고 있다. 이미 200억원의 투자유치에 성공했고 투자유치 문외가 이어지고 있다. 중국 투자자들은 베이징로드가 2억 달러, 한국로드의 회사가치는 5억 달러로 평가해 이런 가치평가를 기준으로 투자유치 금액을 협상 중이다. 정문홍 대표는 “앞으로 10억 토너먼트, 게임콘텐츠 개발, 짐(Gym) 사업 등이 가시화되었을 때는 1년 안에 로드FC의 가치가 20억 달러로 올라갈 것”이라고 확신했다.

김종진 기자 marco@donga.com